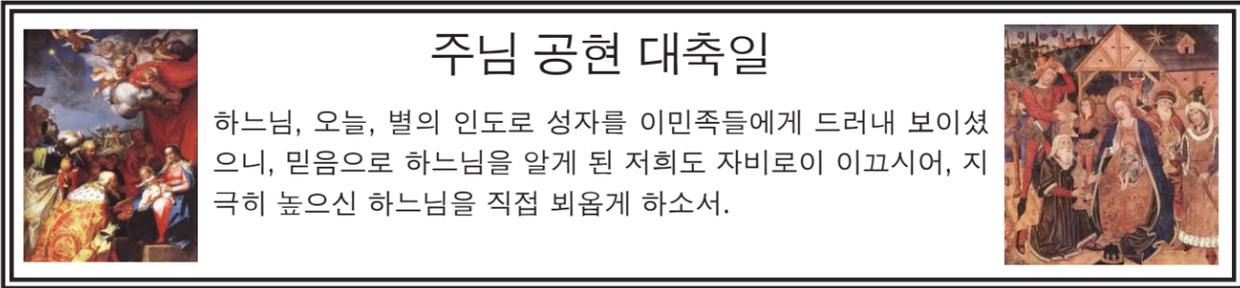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주님 공현 대축일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뵈옵게 하소서.

1월 기도지향

- 캔사스 한인 공동체와 쉬는 교우를 위해

송년 및 새해 인사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요한1,16).”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온 누리와 우리 모든 가정에 한 줄기 빛으로 비추어 주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하느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밝아 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사랑합니다!

평협 및 단체장 발표

- * 회장단 : 홍순익 마르티노(회장), 김태중 예레미아(부회장), 차호섭 요셉(재무)
* 분과장 : 윤유나 글라라(구역부), 박혜정 카타리나(전례부), 정수한 베드로(선교부), 문석찬 요셉(시설부), 김병철 베네딕토(행사부), 이우영 가브리엘(교육부)
지난 임기 동안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 주신 평협 및 단체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갚아 주시리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평협과 단체장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공동체를 위한 봉사가 하느님 제단에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견진 대상자 모집

내년 3월 28일(금) 홀리트리니티 본당에서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은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례분과에 신청 바랍니다.

기타

-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다음 주일(1/12), 지하실 공사 관계로 점심 애찬은 없습니다.
- 맨하턴과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2월부터 있습니다.
- 2014년 공동체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Row 1: 487, 510, 165/175, 100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향 복사, 시종 복사. Rows for 금주 and 차주 with specific names and roles.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Rows for 금주 and 차주 with names and roles.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Roles: 손정화, 한춘희, 황의정, 양정희, 유경애, 지하실 공사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Names: 문석찬, 최은미, 김태중, 정수한

우리들의 정성

Table with 4 columns: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Rows for 12/29 and 1/1 with counts and names.

감사헌금 : 고영방 가정, 남희석 가정

주님 공현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4년 1월 5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구세주를 찾아 사막을 건너는 긴 여정을 마친 박사들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와 굳건함으로 참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께 선물로 봉헌할 것을 다짐하며 이 미사 전례에 기쁘게 참여합시다.

성화해설

빛을 찾는 사람들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마태 2,11)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서 : 이사 60,1-6 <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



주님 - 만 백성이 당 - 신께 조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
○ 정의가 꽃피는 그의 성대에, 저 달이 다하도록 평화 넘치리이다.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물에서 땅 끝까지 왕하시리다.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왕들 예물을 바치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봉물을 바치리니. 세상의 임금들이 모두 다 조배하며, 만백성이 그이를 섬기리이다. ◎
○ 당신께 하소하는 가난한 이와, 외롭고 불쌍한 이를 구하시기 때문이니. 약하고 아쉬운 이를 어여뵈 여기시고, 없는 이의 목숨을 살려 주시리이다. ◎

제 2 독서 : 에페 3,2.3.4.5-6 <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되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 마태 2,1-12 <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

쉐 마

“귀한 만남”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아기가 만났습니다. 박사들은 기뻐고, 아기에게 경배하며 준비한 선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박사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짐작하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그들은 아기를 보면서 기뻐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 이것으로 미뤄보건데, 박사들은 고향에서 기쁨 가득한 행복한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했던 때 빛이 생겨나 세상을 밝히고 질서를 잡았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밝은 빛이 유다 지방 베들레헬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빛이 되어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목동들에게 이 빛은 비춰졌고, 그 다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비춰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이 비춰지기 전인 어둠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다르지요. 어둠 속에만 있지도 않고, 허구한 날 빛이 가득한 행복한 날만 계속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대견스럽고, 멋집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어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맑고 깨끗하고 희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날은 저게 사람인가 싶을 만큼 못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중적이고, 모순 가득하고, 정리되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혼돈 가득한 어둠처럼 보입니다. 이 복잡다단한 우리 삶에 아기가 한 명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아기가 되어 혼돈의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순간입니다. 하느님을 뵈 수 있다니, 박사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드러나심은 소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미비, 미천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구세주라고 믿기지 않는 지극히 가난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멋지게 재구성해 줄 구세주는 위풍당당한 그런 분이셔야만 한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영향을 줬던 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분들이 명성 높으신 분들이셨습니까? 아닐걸요. 나 말고는 그분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소박하게 당신의 인생을 사셨던 분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큰 변화의 시작은 아주 아주 조용하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보통의 일입니까! 이 일이 큰 빛의 시작임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목동들만이 알아봅니다. 헤로데와 그의 부하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시작을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그 일. 박사들이 한 그 일. 그 일을 통해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하느님께서 이 초대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또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박사들이 베들레헬으로 초대 받은 것처럼.

초대에 응한 박사들은 결국 귀한 아기를 만납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많은 소박하지만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의 만남과 나눔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만남들은 귀했고 소박했으며 어쩌면 미천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는 기뻐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되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아기 예수님과 그 빛을 찾아 다녔고, 또 만났고, 경배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제는 압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귀했는지.

그동안 많은 귀한 만남에도 왜 나는 지금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쉽게 상처 받고, 죄 짓는 인간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자주자주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으시면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드리지 못 할 것입니다. 귀한 자리로 초대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 기쁘게 경배드립니다. 새해에도 귀한 만남이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 김동일 신부(예수회) -

마중물

“아버지라는 이름”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 나가는 장소(직장)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열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 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열 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 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신앙의 해’교육자료

제 8절 성령을 믿나이다.



70. ‘성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 이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분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교회는 이 이름을 주님께 받았으며, 새로운 자녀가 되는 세례 때 이를 고백합니다. ‘영’(靈)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말 ‘루아’(Ruah)의 번역으로, 본래 숨결, 공기, 바람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위격적으로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영’이신 그분의 새롭고도 초월적인 존재를 니코데모에게 암시하기 위해, 감지할 수 있는 바람의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약속하실 때 그분을 ‘파라클리토’(Paracletos)라고 부르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곁으로 불려 온 분’(ad-vocatus) 곧 보호자라는 뜻입니다(요한 14,16.26; 15,26; 16,7). ‘파라클리토’는 일반적으로 ‘변호자’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첫 변호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부르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91-692항 참조).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